



2010 F1 드라이버 연봉 현황 (단위: 억)

페르난도 알론소 478억	루이스 해밀턴 255억	키미 라이코넨 255억	펠리페 마사 223억	젠슨 버튼 143억	미하엘 슈마허 127억	니코 로즈버그 127억	로버트 쿠비차 119억	루벤스 바리첼로 87억	마크 웨버 67억	아노 트롤리 47억	제바스티안 페텔 31억
1	2	2	4	5	6	6	8	9	10	11	12

F1 나흘 앞으로... 모든 준비 끝, 무한 질주만 남았다

14일부터 3일간 영암 인터내셔널 서킷(circuit·경주용 트랙)에서 열리는 '2011 포뮬러원 월드 챔피언십'(Formula 1 World Champion ship) 시리즈 코리아 그랑프리 를 앞두고 24명의 드라이버가 한국을 찾는다.

지구상에 단 24명 F1드라이버 강철체력 갖춘 슈퍼스타

알론소 478억 최고 연봉... 최다 우승자는 7차례 슈마허

◇24명의 철인, 체력이 필수=F1 드라이버는 전 세계 24명뿐인 '희귀 직업'으로, 모터스포츠를 꿈꾸는 드라이버의 최종 목표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를 경기 종료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감정 컨트롤 하면서 운전해야 하는데, 전 세계를 돌며 대회가 진행되는 탓에 그랑프리 완주를 위해서는 마라토너가 20km이상을 달릴 때 요구되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고속 주행이나 급회전 때 체중의 5배인 5G(Gravity)의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야 한다. 예컨대 몸무게 80kg의 드라이버가 시속 200km로 머신을 운전하다 완전히 정지하거나 급회전할 때 안전띠를 통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압력이 400kg에 이른다는 것이

다. 이같은 극한 상황을 2시간 넘게 반복할 수 있어야 F1 드라이버로 살아남을 수 있는 셈이다.

300km의 속도로 달리는 머신을 좌우로 회전시키는데 들어가는 힘은 20kg의 물체를 옮기는 것과 같은 만큼 근력도 F1 드라이버의 필수조건이다.

레이스 도중 F1 드라이버가 견뎌내야 하는 것 가운데 '열기'도 빼놓을 수 없다. F1 머신이 제동할 때 800도까지 올라가는 발 밑 브레이크 디스크와 뜨겁게 달궈진 엔진 열기는 방화복을 입은 드라이버 등 뒤로 고스란히 전달된다. 여기에 서킷에서 올라오는 열기도 감당해야 한다. 이 때 운전석(코킵·cockpit) 내부는 50도까지 치솟는다. 이 때문

에 드라이버가 한 경기를 치르고 나면 통상 3kg이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테니스 선수가 2시간 풀세트 점전을 펼칠 때의 체력 소모량(2kg)을 웃돈다.

◇알론소 연봉 1위=지난해 월드챔피언십을 위해 팀단 총아부는 평균 비용만 1700억원에 이르는 만큼 F1 대회 드라이버의 연봉도 상상을 초월한다.

포뮬러머니(Formula Money)가 내놓은 지난해 드라이버별 연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시즌 페르난도 알론소(스페인·페라리·30)의 몸값이 3000만 유로(1유로=1595원, 한화 478억)로 최고 연봉자로 등록됐다. 2위는 루이스 해밀턴(영국·맥라렌·26)과 전 F1 드라이버 키미 라이코넨(핀란드·31)이 1600만 유로(한화 255억)를 받았다. 펠리페 마사(브라질·페라리·30)가 1400만 유로(223억)로 뒤를 이었다. 젠슨 버튼(영국·맥라렌·31)이 900만유로(143억)로 5위,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42)와 니코 로즈버그(독일·메르세데스·26)가 6위(800만유로·127억), 로버트 쿠비차(폴란드·르노·26) 750만유로(119억), 루벤스 바리첼로(브라질·윌리엄스·39) 550만유로(87억), 마크 웨버(호주·레드불·35) 420만유로(67억), 아노 트롤리(이탈리·로터스·37) 300만유로(47억), 페텔(독일·레드불·24) 200만유로(31억)등의 순이었다.

현역 드라이버 가운데 가장 낮은 연봉은 브루노 세나(브라질·르노·26)로 15만유로(2억3000만원)로 기록됐다. 나머지 카운 찬독과 사곤 아모토는 자신이 스폰서의 도움을 받아 거꾸로 팀에 돈을 내고 경기를 뛰는 페이 드라이버다.

그나마 이 금액은 스폰서 광고액이 빠진 금액인 만큼 수익은 훨씬 늘어난다.

◇코리아 그랑프리 때 챙겨봐야 할 드라이버 관전 포인트=한국 팀이나 선수가 없는 게 흠이라면 흠이지만 24명 중 한 명을 정해 응원하면 경기를 지켜보는 재미가 더해진다.

일단, 월드챔피언을 사실상 확정된 페텔의 기록 달성 여부다. 현재 페텔은 상하이 그랑프리까지 모두 9차례를 우승했다. 남은 5개 대회 중 4개 대회를 우승하면 슈마허가 세운 한 시즌 최다 우승기록(2004년 13승)과 같게 된다.

11차례의 예선 1위(풀 포지션) 기록도 눈여겨봐야 한다. 페텔이 남은 5개 대회 중 3번의 풀 포지션을 확보하면 61년 F1 역사상 최다 풀 포지션 드라이버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된다.

현재 4위인 마크 웨버의 경우 올 시즌 14차례의 대회까지 모두 3차례 풀 포지션을 차지했지만 예선 1위를 차지해놓고도 우승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스타트 그리드 라인 맨 앞을 차지하면서도 잦은 실수로 선두권에서 멀어지는 징크스를 갖고 있다. 종합 2위 싸움을 하는 젠슨 버튼, 페르난도 알론소, 마크웨버간 순위 경쟁도 흥미롭다.

미하엘 슈마허의 추월 능력도 볼거리다. 지난 벨기에 대회에서는 24명의 드라이버 중 꼴찌로 출발했지만 추월을 거듭하며 5위의 기록을 냈고 지난 1995년 스페인 그랑프리에서는 예선 17위로 출발, 16대를 제치고 우승한 기량을 선보인 바 있다.

지난 1992년부터 F1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슈마허는 1994년부터 2년 연속, 다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 연속 정상에 오른 등 모두 7차례나 F1 종합 챔피언을 차지한 전설적인 선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레이스가 신체 각 부위에 미치는 영향



눈
진동에 의해 눈이 피로하게 되면 집중력도 함께 떨어지기 쉽다.

목
노면의 요철에 휩쓸리기 쉬운 머신은 목 근육에 부담을 준다.

갈비뼈
커브를 도는 순간 갈비뼈에 오는 충격은 매우 크다.

팔꿈치
팔꿈치는 콕핏 안에서 언제나 가장 다치기 쉬운 부분이다.

골반뼈
골반뼈는 서킷의 거친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그대로 흡수한다.

손가락
하이 스피드로 커브를 돌때 스티어링휠 인해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한다.

무릎
동그랗게 튀어나온 부분은 콕핏 안에서 부딪히기 쉽다.

발
갑자기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하면 발에 통증이 오기 쉽다.



F1 머신 한눈에 둘러보기

브레이크 탄소섬유로 소재, 2,000℃의 열에서 6개월 가량 가공해야 디스크 하나를 제조할 수 있음. 500~800℃의 고온에서 제 성능 발휘.

윙 머신 앞뒤에 달린 날개. 공기를 적절히 이용, 앞뒤 바퀴에 각각 11이 넘는 차례 무게를 지면으로 눌러 붙여주는 효과.

엔진 드라이버가 착석하는 운전석 등 뒤에 위치.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처럼 열에 강하고 단단한 첨단 소재를 주로 사용. 중량 80~100kg.

헬멧 규정 무게 1,800g. 드라이버 개인 취향에 따라 디자인

변속기 수동식이지만 자동처럼 사용. 핸들에 달린 레버를 당겨 기어 단수를 조정하도록 제작됨. F1 드라이버라면 200분의 1초만에 기어를 바꿀수 있음.

타이어 중량 15kg내외(휠 포함). 실제 레이스에서 100여km 주행 후 새 타이어로 교체

차체 벌집 모양의 알루미늄 구조물 위에 탄소 섬유 겹겹이 붙이는 방식으로 제조.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5년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10월 18일 까지
30%
대세일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앤티크식탁 이태리



앤티크좌탁·거실TV장 이태리



소파 이태리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앤티크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홍스페이스
SPACE
☎ 062 226 7567